

청정바다 풍성한 자연의 寶庫... 머물고 싶은 '힐링 마을'

손님이 산처럼 물려오는 곳... 포슬포슬한 회천감자 유명
천혜환경 속 토종별 자라고 갯벌엔 썩·바지락·낙지 가득
해안가엔 펜션 들어서고 필봉산서 바라보는 해돋이 일품

찾아오시는 길

전남 보성 객산마을 (보성군 회천면 객산길 15)

- ▶ 승용차
반포IC → 경부고속도로 → 노산천안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지원교차로 (회천, 장흥방면) → 초당교차로(순천, 벌교방면) → 천포사거리(선소, 객산방면) → 객산길을 따라 22m이동
-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 → 보성시외버스터미널(4시간40분) → 보성-비봉 농어촌버스(약 70분) → 객산정류장 하차
- ▶ 열차
용산역/영등포역 → 득량역 → 득량역 정류장, 보성-비봉 농어촌버스(약 40분) → 객산정류장 하차

바쁜 삶에 지친 사람들은 '힐링'을 이야기한다. 잘 쉬고 잘 먹는 게 삶의 중요 가치가 된 요즘, 힐링 같은 마을이 있다. 바다와 산에 포근하게 안겨 있는 보성군 회천면 객산마을.

객산마을로 가는 길부터 힐링이다. 광주에서 1시간여를 달리다 보니 산길 옆으로 햇살이 곱게 부서지는 바다가 짙고 눈에 들어온다. 보성 하면 '녹차'를 떠올리게 된다. 푸른 물결의 녹차밭으로 대표되는 곳이지만 보성은 바다 마을이기도 하다. 잊고 있던 보성의 바다를 따라 객산 마을로 향한다.

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득량만에 그득 물이 차올라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다. 멀리 조업을 나간 이들의 움직임이 바다에 반사되어 온다. 객산 어민 회관 앞으로 펼쳐진 바다, 몸을 돌려 뒤를 보면 멀리 필봉산까지 병풍처럼 산이 마을을 지키고 서 있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마을은 고요하다. 하지만 이곳의 들판과 산과 바다는 쉼 없이 움직이며 생명을 만들어 낸다.

비옥한 토지와 산자락에는 쪽파, 브로콜리, 양상추, 북분자, 고사리 등이 키워진다. 포슬포슬한 회천 감자는 유명하다. 부지런한 꿀벌도 이 마을의 당당한 일원이다. 한복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게 김영휘 객산어촌계 총무의 설명이다.

김씨는 "마을 앞이 바다라서 전염될 것이 없고, 뒤는 높은 산이 있어서 외부에서 벌이 오지 않는다. 우리 지역의 토종별만 양성하게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더 좋은 꿀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간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노나무를 사다가 심고, 황칠나무도 두르는 등 천혜의 환경 속 주민들의 손길 속에 귀한 꿀이 채워져 간다.

세 골짜기의 물이 모여 이뤄진 객산리 하천이 득량만으로 흘러나가는 길목에는 맛 좋은 바지락이 그득하다. 비싼 가격에도 일본으로 전량 다 수출했던 바지락이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어패류에 대한 일본 내 소비량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국내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다.

바지락 발인 갯벌은 썩, 고동, 낙지도 가득 품고 있다. 13척의 어선이 신고 오는 해산물도 풍성한, 자연의 보고 객산마을이다.

조선 중종이 연산군의 폭정을 피해 보성으로 내려온 자신의 스승에게 '사방 30리를 주여라'며 허사한 땅이 바로 이곳이다. 마을 뒷산 바위가 둘러져 있는 모습이 관(巒)의 형상이라 하여 관암(巒岩)이라 불려오다 언제부터인가 '객산(峇山)'이 되었다.

고요한 마을은 '손님이 산처럼 많이 물려오는 곳'이라는 이름에 맞게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해질 예정이다.

지난 6월 해양수산부 주관 '2018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특화개발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객산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국비 21억원을 포함해 총 30여억원의 사업비로 회천 객산마을의 어촌 특화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득량만 청정해역이라는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도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객산마을



세 골짜기의 물이 모여 이뤄진 객산리 하천이 마을을 지나 득량만으로 흘러나간다. 득량만에는 맛 좋은 바지락과 썩, 고동, 낙지가 가득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을의 변신.

리아스식 해안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펜션이 조성될 예정이다. 바다를 보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연 무대도 만들어 객산 마을의 색소폰 연주자들이 실력을 발휘할 생각이다.

풍성한 바지락과 전어를 중심으로 체험장도 조성된다.

바지락 잡기 체험장으로는 최적의 조건이다. 자갈하고 모래가 합쳐진 갯벌은 발이 빠지지 않아 아이들도 장화를 신고 이동하기에 좋다. 물이 빠지면 경운기가 들어갈 정도다.

객산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수문도 만들어 전어 축제, 물 축제도 펼칠 계획이다. 약 4000㎡(1200평) 정도의 하천길을 따라서 전어도 잡고, 오리배·바지선 배를 타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민다는 게 주민들의 계획이다. 물길 양옆으

로는 오색 가로등을 설치해 운치를 더하고 시원한 물을 뿜는 분수대도 생각하고 있다.

산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마을의 해돋이 풍경도 사람들의 발길을 잡을 것이다. 필봉산에 데크를 설치해 갯바위와 유산각 두 갈래 길로 나눠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꾸미고 있다.

이곳의 역사도 함께 살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갯바위를 넘어가면 석보창(石堡倉)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만 남았을 때 선소에서 배를 만들면서 무기와 식량을 보관했던 곳이다. 보성은 이순신의 처가이기도 하다. 왜군이 찾기 어려운 안전한 곳에서 미래를 도모했던 역사가 남아 있는 곳. 지금은 흔적만 있는 석보창을 의미 있는 역사 관광지로 꾸미고 싶은 게 주민들의 바람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물축제·전어축제 열고 바지락체험장 마련 많은 사람 편하게 찾고 싶은 마을 만들 것”

김영휘 객산어촌계 총무

“우리 마을은 객산(峇山)이라고 하는데, 손님이 산처럼 많이 물려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지어놓은 지명대로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았습니까?”

김영휘 객산어촌계 총무(사진)는 많은 이들이 다녀갈 수 있는 좋은 마을을 꾸밀 생각에 마음이 바쁘다. 지난 6월 객산 마을이 '2018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특화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할 일이 많아진 것이다.

수문을 만들어 물축제·전어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소문난 이곳의 바지락을 직접 캐볼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할 생각이다. 필봉산 정상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데크길도 꾸미고, 손님이 넉넉하게 쉬어갈 수 있는 펜션도 지어야 한다.

김 총무는 “그동안 보성은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곳이었다. 완도 가서 구경하고, 보성에 와서 골프 치고, 장흥에서 먹고 간다는 말이 있다. 머무를 곳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옆 선소에는 공룡알 화석지도 있고 여건은 좋다.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많은 이들이 오겠다고 한다. 준비 잘해서 많은 이들이 편하게 찾고 즐겁게 다녀갈 수 있는 마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애써 기르고 수확한 농작물의 판매 활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김 총무는 “이곳의 감자는 유명하다. 쪽파, 고사리, 옥수수, 브로콜리, 양상추도 키운다. 북분자도 많이 생산되고 팔도 많이 나온다. 열심히 생산해도 판로를 못 찾아서 소득을 못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판매 방법도 찾고 있는데 이곳에 관광객이 조성되면 우리 마을에서 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을 찾는 분들이 체험, 관광을 하고 좋은 먹거리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객산마을의 13척의 어선은 부지런히 바다를 오가며 주꾸미 등 해산물을 신고 온다.



마을 주민이 폐그물을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여·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 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

물결마다 총무공 숨결... 모래 한줌에도 500년 역사 켜켜이



한 장의 사진 안에 하늘과 바다와 땅이 모두 보인다. 푸른 바다를 향해 뻗은 방파제, 조그만 어선, 갯벌과 모래사장이 다른 한편에는 동산과 논밭,形形色색의 집들, 해안도로가 수채화처럼 펼쳐졌다. 지난 11월 3일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하늘에서 내려다본 군학마을의 모습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방파제 기트머리에서 바다를 보고서니 앞은 고흥군 득량도가, 좌로는 울포해수욕장이 우로는 장흥군이 자리 잡고 있다. 인기 TV 프로그램 '삼시세끼'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고흥군 도양읍 득량리 득량도는 배로 10분, 솔밭해변으로 유명한 보성군 회천면 울포해수욕장은 승용차로 5분 거리다. 오른쪽 마을 끝은 장흥군 안양면과 맞닿아 있다.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 얘기다. 보성군과 장흥군이 접한 군학마을은 보성 녹차밭과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해안을 따라 득량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어촌 마을이다. 해양수산부는 군학마을을 아름다운 어촌마을로 선정하기도 했다.

인근 울포 해수욕장과 비봉 선사공룡암 화석지와 연계된 자연스러운 경관이 돋보인다. 조선 세종때 이곳에 수군만호진이 개설됨으로써 '군영구미'라 불려오다, 그 후 '구미영성'에 이어 현재는 군학이라 부르게 됐다고 전해진다. 어촌계장 김성기(60)씨에 의하면 이곳에 사람들이 터잡아 살며 마을을 이룬 시기는 약 500년 전이다.

2017년 11월 현재 마을 주민은 105명. 어느 농어촌마을처럼 노인들이 다수다. 15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은 한 명도 없고 70세 이상 노인만 55명에 달할 정도다. 이 가운데 어촌계 회원은 32명. 도시나 시골 읍내의 시골벽처럼 없고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게 되려 이 마을의 자랑이다. 마을 어디서든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하면 찰싹 찰싹 파도소리가 들려온다.

집들은 바다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해안도로 위쪽에 웅기종기 자리를 잡고 있다. 야트막한 산 초입에 지어진 집, 해안도로 코앞에 들어선 집... 어느 집에서나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마을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득량만 갯내음이 온 마을을 휘감는다. 숨을 잠시 참고 '수우우우'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보니 정말이지 짝뜨름한 바다향이 입과 코를 지나 가슴 저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

군학마을 자랑거리의 단연 깨끗하고 기름진 갯벌이다.

이곳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은 군학마을 어촌계원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팔팔 끓는 물에 해금한 바지락을 넣고 마늘 두어 개만 뺏아서 넣으면 그걸로 끝이다. 조갯살은 쫄깃쫄깃 국물은 말 그대로 시원하다. 어민들은 이른 봄 호미 하나 들고 팔로 나가 바지락을 캔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면 한명에서 바지락 50~60kg은 너끈하다. 생산한 바지락은 수의계약 맺은 상인들에게 그날그날 팔리거나 인근 유통장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군학마을 앞 바다는 여름에는 하

조선 세종때 수군만호진 개설

이순신 장군 출항하던 곳

황금바다 일구며 자자손손

바지락·낙지... 풍요로운 갯벌

눈부신 득량만 풍광 한눈에

해수부 선정 '아름다운 어촌'

모름, 가을에는 전어를 어부들에게 내어준다. 겨울 초입부터는 참게와 물메기 낙지 주꾸미 대하를 잡는다. 기자가 찾아가 11월 초순에는 참게와 물메기, 대하가 나왔다. 그중에서도 대하는 말 그대로 '대하(큰새우)'였다. 일단 크기가 엄청났다. 몸통은 웬만한 음료 캔과 비슷했고 길이는 족히 30cm는 돼 보였다. 이렇게 큰 새우가 정말 존재하는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날 오후 조업을 마치고 방파제로 들어오는 소형 어선마다 대하 30마리, 물메기 20마리 안팎을 잡아왔다. 대하는 통발로, 물메기는 주낙으로 잡는다.

솔밭을 품은 해변도 마을의 자랑거리다. 해안도로를 타고 달리는 관광객들도 차량을 잠시 세워두고 솔밭 한편에 놓인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띈다. 고요할 뿐 아니라 도로와 가깝기 때문이다. 해안도로와 해변의 거리는 이틀테면, 군(軍)의 포병들이 보병

들을 고단함을 약올리며 하는 말로 설명이 가능하다. 갯벌에 차를 세우고 정확히 세 걸음을 가면 그 다음은 바로 고운 모래다. 그리고 눈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다.

기름진 갯벌, 깨끗한 바다, 풍성한 해산물과 함께 군학마을의 강점은 보성이 자랑하는 주요 관광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길이 1.2km에 달하는 울포해수욕장, 해수욕장 온천탕,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차량으로 5~10분 거리 이내에 자리 잡고 있다. 해수욕장 온천탕은 울포해수욕장 내에 있는데 지하 120m에서 지하 바닷물을 끌어올린 해수와 다원에서 생산된 찻잎을 우려낸 녹수를 이용해 건강목욕을 즐길 수 있다. 수려한 경관, 풍성한 즐길 거리도 먹을거리, 잠잘 곳이 충분치 않다면 그 맛이 반갑되기 마련이다. 군학마을 인근의 숙박시설과 식당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주요 숙박시설로는 '정씨고택', 꽃뜰펜션, 녹차향선 그리고 다비치호텔 등이 있다. 영광 정씨 후손들이 운영하는 정씨고택(<http://정씨고택.kr>)은 보성군 회천면 봉서동길 36-8에 위치했다. 400년 전 초가르던 집을 19세기 후반에 기와로 새로 지은 집이다. 꽃뜰펜션은 보성군 회천면 일림산길 279에 자리잡고 있다. 방은 5개, 최대 29명을 수용한다. 모아레저산업이 운영하는 다비치호텔은 울포해수욕장에 있다. 81실, 최대 595명 수용가능하다. 주요식당은 전일횃집, 보성녹둔전문점, 만리화관, 행낭횃집 등이 있으며, 울포해수욕장 주변에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술집 등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군학마을 방파제에서 바다에서 방금 돌아온 어민들이 중간상인들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파제 뒤로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득량도가 자리 잡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성기 어촌계장

“싱싱한 해산물이 365일 무궁무진 관광객도 귀어민도 대환영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을로 오십시오. 열심히 배우고 일하면 어촌사람 밭이 도시사람 2~3배는 가뭄이 뛰어들어 줍니다.”

보성군 회천면 군학마을 김성기(60·사진) 어촌계장의 소망은 도시 청년들이 군학마을로 내려와 자리를 잡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 이왕이면 고향 출신 청년들이 와준다면 좋겠지만 성실하고 마을 사람들과 화합할 줄 아는 젊은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도시든, 어촌마을이든 한 3년 고생하면서 바다일을 배운다면 적어도 금전적으로는 도시사람 부럽지 않는다는 말도 여러 번 강조했다.

김 어촌계장의 자신감은 회수분 같은 군학마을 앞바다에서 비롯되는 것 같았다. 1년 365일 갯벌과 바다에서 싱싱한 해산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차량으로 5분이면 닿는 울포에 워터파크가 자리잡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발달해 바다에서 수확해온 먹을거리를 마음만 먹으면 그때그때 팔아 손에 현금을 쥘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선박 운전면허가 있고 배를 갖춘다면 낚시꾼을 모집해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다만, 어느 농어촌마을과 마찬가지로 '대



행병원, 극장 등 문화시설, 쇼핑 등 요즘 젊은층에 꼭 필요한 시설이 너무 멀리 있다'는 게 어촌 생활의 단점이다.

그는 “십수년만 흐르면 마을이 아예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다”며 “하지만 마을에서 어울리며 일하면 남부럽지 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전남 보성 군학마을 (보성군 회천면 군학길 23-1)

▲ 승용차
한남IC → 경부고속도로 → 논산천안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지원교차로(화순, 장흥방면) → 초당교차로(목포, 장흥방면) → 장수교차로(안양, 회천방면) → 군학길을 따라 8m이동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 → 보성시외버스터미널(4시간40분) → 보성-군학 농어촌버스(약 55분) → 군학정류장 하차

▲ 열차
용산역/영등포역 → 보성역 → 우산리 정류장, 보성-군학 농어촌버스(약 55분) → 군학정류장 하차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기업과 손잡고 전복·피조개 분말 첫 출시 호평

지난 6월 전남도내 어촌계-우수수산업체 1어촌1상품 OEM협약식
여수 피조개·해남 전복·무안 물김, 아라움·아침가리·살롬산업 공급
상품 명칭·디자인·포장 조사 일본 국제수산물 박람회 벤치마킹
추석명절 정부청사 ‘어울림 장터’ 열어 선물세트 10여종 홍보 판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올해 대표사업으로 ‘OEM(주문자상표부착) 상품 출시’를 선정했다. 싱싱하고 건강한 전남 어촌의 수산물에 전남 수산가공업체의 기술력을 가미해 대표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계획을 수립했다. 전남 어촌은 자숙·건조·냉동·내장 제거 등 1차 가공을 받아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전남의 수산가공업체는 안정적으로 원물을 공급받아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센터의 지원을 받아 판매할 수 있는 등 어촌과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센터는 이를 위해 1차로 전남의 수산가공업체 가운데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을 선별한 뒤 현장 방문을 통해 3개 업체를 협력기업으로 선정해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6월 1일 광주시 동구 센터 회의실에서 전남도내 어촌계와 우수수산가공업

체와의 ‘1어촌1상품’을 위한 OEM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임광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임영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완도해양바이오센터 센터장, 이희한 여수 안포 어촌계장, 용양배 해남 송호 어촌계장, 정경태 무안구로 어촌계장, 김정매 살롬산업(주) 대표, 김미선(주)아라움 대표, 김영수(주)아침가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여수 안포어촌계의 피조개, 해남 송호어촌계의 전복, 무안 구로어촌계의 물김 등 특산물을 상품 생산에 적합하게 자숙, 건조, 냉동 등 1차 가공을 이(주)아라움, (주)아침가리, 살롬산업(주) 등에 공급했다. 이들 업체는 제품 개발, 디자인·특허 비용 등을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수산가공제품을 만들어 국내·외 유통망을 통해 판매했다. OEM 상품은 시제품 개발, 품질회 등의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추석 선물세트에 내놓는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센터는 7월 18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완도해양바이오센터, (주)아라움, (주)아침가리, 여수 안포 어촌계, 해남 송호 어촌계 등과 OEM 상품 2차 품질회를 개최했다. 센터 회의실, 가매일식 등에서 열린 이번 2차 품질회에서는 전복과 피조개로 만든 분말, 포 등 (주)아라움, (주)아침가리 등이 만든 상품을 어촌계 주민, 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 맛을 보고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본격적인 상품 출시를 앞두고 상품 명칭, 디자인, 포장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도쿄 빅 사이트(Tokyo Big Sight)에서 열린 제19회 일본 국제수산물 및 기술박람회(Japan International Seafood & Technology Expo)를 견학했다.



센터가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 (주)아침가리 등과 함께 만든 주문자상표부착 첫 가공상품인 전복 분말, 피조개 분말.

이번 견학에는 임광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등 센터 직원, 이희한 여수 안포 어촌계장, 용양배 해남 송호 어촌계장, 정경태 무안 구로 어촌계장, 김미선(주)아라움 대표, 김영수(주)아침가리 대표, 김정매(주)살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람회에는 일본을 비롯해 해외 15개국에서 830개 업체, 기관 등이 부스를 설치해 수산물, 가공식품, 포장 및 가공기계 등 8300여 개의 아이템을 전시했다.

견학에서 센터, 어촌, 지역 수산가공업체는 전세계의 수산가공상품의 우수사례를 참조해 전복, 피조개 가공상품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세트의 디자인과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했다. 이들은 견학을 마친 뒤 전체회의를 갖고 상품 명칭으로 ‘정정 바다가 만든 탕탕 송호 전복’, ‘정정 갯벌이 만든 싱싱 안포 조개’로 잠정 결정, 이후 본격적인 상품 제조에 들어가기로 했다. 추석선물세트 가격은 5만원 이

하로 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5~26일 정부세종청사 일원(4·5동)에서 ‘어(漁)울림 장터’를 열어 전남 어촌과 대표기업들이 내놓은 선물세트 10여종을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판매했다. 어울림 장터에서는 해남 송호·여수 안포 어촌계의 전복과 피조개로 만든 분말가루·포·스낵 등을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제작해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해수부가 추진 중인 전남·경남지역 ‘어촌 6차 산업화’ 시범마을 및 지역 수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수산물과 가공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촌 6차 산업화는 어촌에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어업(1차)과 식품·특산물 제조 및 가공(2차), 유통판매 및 문화·체험·서비스(3차) 등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센터는 광주의 협력기업인 Y-MART(영암마트) 물류도매유통센터에 개설한 안테나숍은 물론 (주)피쉬데이의 오프라인 매장, 기타 유력 온라인 등을 통해 이들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상품의 질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갈 방침이다. 또 내년 설 연휴를 겨냥해 무안 구로 물김으로 만든 가공식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개최한 ‘1어촌1상품’을 위한 OEM 협약식.



지난 7월 18일 센터가 개최한 OEM(주문자 상표 부착)상품 2차 품질회.



센터는 지난 8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도쿄 빅 사이트에서 열린 제19회 일본 국제수산물 및 기술박람회를 견학했다.



지난 9월 25~26일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어(漁)울림 장터’에서 OEM상품 전복·피조개 분말, 전복·피조개 포를 첫 출시했다.

품평회·안테나숍... 전남 어촌상품 전국에 알리고 판매

피조개 볶음·장조림·갯오징어 초밥...
6차 산업화 통해 어민 소득증대 기대
내년 안테나숍 참가 어촌계 3곳 추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남 어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을 알리고 판매하기 위해 품평회, 포럼, 박람회에 참가하고 안테나숍을 설치해 운영했다. 먼저 지난 3월 6일 여수시 화양면 안포마을에서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와 함께 피조개로 만든 음식 품평회를 가졌다. 품평회에서는 안포마을 주민들이 직접 개발한 피조개 볶음, 조림, 고로케, 카레, 장조림, 전 등 10여 가지 음식이 선보였다. 백규형 GS홈쇼핑 본부장, 이광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원본부 판로지원팀장, 정구 창조경제지원팀 선임연구원 등은 음식을 평가하고 상품화 가능성을 진단했다. 이광태 판로지원팀장은 “주민이 직접 만들었다고 보기에 수준급이지만, 피조개를 주재료로 만든 사례가 없어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가공업체를 선정해 상품을 일정한 수준에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희한 안포마을 어촌계장은 “피조개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생물 가격이 급락해 냉동저장할 수 있는 1차 가공시설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1차(생산), 2차(가공), 3차(유통, 관광, 서비스 등)를 연계한 6차 산업화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유성(46) (사)바다세프협회 회장은 여수 안포마을의 갯오징어 남도초밥을 개발해 마을 주민들에게 전수했다. 안 회장은 광주대 호텔조리학과 교수, 대한민국 조리기능장 호남지회장,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지역 대표 요리사다. 지난 11월 13일에는 안테나숍 개장식을 광주시 서구 Y-MART 물류도매유통센터 앞에서 가졌다. 이날 개장식에는 최경희 전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환경과장, 임광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장, 김성진 영암마트 회장, 정경태 무안 구로어촌계장, 이희한 여수 안포어촌계장, 용양배 해남 송호어촌계장, 김홍일(주)피쉬데이 대표, 그 외 어촌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올해 여수 안포 피조개, 해남 송호 전복, 무안 구로 낚지 등 원물은 물론 전남의 수산물로 만든 우수한 가공제품까지 전시·판매하고 있다. 안테나숍은 여수 안포



11월 13일 광주시 서구 Y-MART 물류도매유통센터 앞에서 가진 안테나숍 개장식.

마을, 해남 송호마을, 무안 구로마을 등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완료 마을의 판로 개척을 통해 어민 소득 증대와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Y-Mart 옹동점과 본점 등 2곳에서 안테나숍을 운영해 3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안테나숍 참가 어촌계는 모두 3곳이며, 내년에는 함평 석두어촌계, 신안 한운사치어촌계, 여수 소경도어촌계 등 3곳이 추가로 참여한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최 ‘2017 씨팍쇼’에 참여해 센터가 첫 출시한 전복·피조개 분말 등을 홍보했다. 씨팍쇼 기간 관리대상 어촌인 여수 안포, 해남 송호, 무안 구로 등의 특산물인 피조개, 전복, 물김 등은 물론 센터 협력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전남의 다양한 수산가공식품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지난 2년간 전남 어촌의 소식을 담은 홍보지와 센터 주요입무를 담은 팸플릿 등을 씨팍쇼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자문위원 안유성(47) 요리사를 여수 안포마을에 파견해 피조개 초밥과 피조개 만두를 어민들과 함께 요리·시식하며 레시피를 전수하도록 했다.

12월 8일 함평 천지면옥, 여수 들깨나라, 장흥 바다하우스 식당 등 3곳에서 일제히 개최된 ‘전남 대표음식점과 전남 어촌을 위한 싱싱장터’.



12월 8일 함평 천지면옥, 여수 들깨나라, 장흥 바다하우스 식당 등 3곳에서 일제히 개최된 ‘전남 대표음식점과 전남 어촌을 위한 싱싱장터’.

바지락·툇 등 전남 생산 싱싱한 수산물
여수 들깨나라 등 지역 대표 음식점 공급

전남 어촌 협력 음식점 선정
싱싱장터 열어 홍보·판매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을 지역 대표 음식점에 원재료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전남의 수산물은 지역 내에 제대로 유통망을 갖지 못하면서 외지 값싼 수산물이 주요 음식점에 공급되고 있었다. 이에 센터는 2만2000개의 음식점이 가입돼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와 지난 7월 1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센터 회의실에서 전남 어촌이 생산하는 수산물 직거래, 음식 개발 교육, 싱싱 장터 운영, 관련 내용 홍보 등을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일환 편집국장, 송기현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장, 임광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와 전남 어촌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음식을 조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산하 유명음식점을 섭외하고, 어민들을 상대

기관·기업·단체와 연계 ... 어촌과 도시 상생 기반 제공

광주전남영양사회·광주도시철도공사·Y-MART와 연계 잘 사는 전남 어촌·어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상호 교류 협약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도시의 다양한 기관, 기업, 단체와 어촌을 연계해 어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먼저 지난 5월 17일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영양사회(이하 광주·전남영양사회)가 전남 어민들을 대상으로 특산물 제조 가공에 필요한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5월 17일 광주·전남영양사회와 잘 사는 전남 어촌과 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전남영양사회는 센터의 의뢰를 받아 관리 대상 어촌의 특산물 제조 가공에 있어 주민들을 상대로 제반 사항을 교육을 진행했다. 또 센터가 관리하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지역 내 공동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장서영(46) 광주·전남영양사회 회장은 “전남의 수산물을 전국민이 안심하고 구

매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부터 위생을 철저히 챙겨보겠다”며 “어민들이 단순 가공 등에 있어서 인·허가를 받는데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월 21일에는 무안 구로마을, 광주도시철도공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잘 사는 전남 어촌과 어민 삶의 질 향상, 어촌과 도시의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경태 무안 구로마을 어촌계장,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임광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무안 구로마을은 광주도시철도공사·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협약기관과의 교류, 방문하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약속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무안 구로마을의 특산물 판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급적 일정

량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무안 구로마을에서 휴가, 주말, 연휴 등 비업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 측은 무안 구로마을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역 구내에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경태 무안 구로마을 어촌계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로마을에 든든한 친구가 생겼다”며 “이번 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성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구로마을에서 생산하는 낙지, 김, 양파 등이 제 가격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공사 차원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논의도 계속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0월 24일 무안구로마을을 찾아 어민들과 함께 ‘김발 이식 작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노사에서 각각 15명씩 모두 30명이 참여해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전남 어촌을 찾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성호 사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며 직접 김발을 손질하기도 했다.

김 양식을 위해 이달들어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일하고 있는 무안 구로 어민들은 도시에서 찾아온 지원군을 반갑게 맞이했다. 정경태 무안 구로마을 어촌계장은 “요즘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었는데, 공사에서 이렇게 마을을 찾아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마음을 전했다.

12월 8일에는 함평 석두어촌계, Y-MART(영암마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함평 석두마을에서 잘 사는 전남 어촌과 어민 삶의 질 향상, 어촌과 도시의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Y-MART는 함평 석두마을의 특산물 판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급적 일정량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함평 석두 마을에서 휴가, 주말, 연휴 등 비업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손흥주 함평 석두마을 어촌계장은 “전국에 100여 점포가 넘는 Y-MART와 협약을 맺게 돼 앞으로 특산물 유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Y-MART 회장은 “앞으로 특산물 판매는 물론 직원들의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를 석두마을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지난 5월 17일 센터와 광주·전남영양사회가 잘 사는 전남 어촌과 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8월 21일 무안 구로마을, 광주도시철도공사, 센터가 잘 사는 전남 어촌과 어민 삶의 질 향상, 어촌과 도시의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0월 24일 무안구로마을을 찾아 어민들과 함께 ‘김발 이식 작업’에 나섰다.



12월 8일 함평 석두어촌계, Y-MART(영암마트), 센터가 함평 석두마을에서 잘 사는 전남 어촌과 어민 삶의 질 향상, 어촌과 도시의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 어촌에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지난 11월 9일 오전 남중현 창신대 호텔관광학과 교수, 박송준 목포대 경영학과 교수, 정준영 한국어어촌어항협회 과장 등 우수해양관광상품 현장점검단이 해남 송호마을을 찾았다.

대원여행사와 관광상품 개발 서울·광주에서 어촌·섬 투어 2017 우수 해양관광 협약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남 어촌에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구성했다. 지역 유명여행사와 공동으로 서울, 광주에서 전남의 어촌과 섬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한 것이다.

센터 협력업체인 대원여행사(대표 박기성)는 지난 7월 10일 한국어어촌어항협회와 ‘2017 우수 해양관광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갖는 등 주목을 받았다.

대원여행사는 센터와 함께 2015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대상마을인 해남 송호마을을 소재로 관광상품을 만들어 해남 송호마을 주민의 소득 향상, 전남도내 관광객 유치 등에 기여하고자 했다.

대원여행사 박기성 대표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먹을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자원을 가진 전남 어촌의 매력을 접하게 됐다”며 “도시민들이 전남 어촌을 좀 더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해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 송호마을을 찾은 전문가들도 상품에 대해 호평했다.

지난 11월 9일 오전 남중현 창신대 호텔관광학과 교수, 박송준 목포대 경영학과



11월 16일 최초로 외지 단체 관광객 32명이 찾아온 해남 송호마을 전복 판매장.

교수, 정준영 한국어어촌어항협회 과장 등 우수해양관광상품 현장점검단이 해남 송호마을을 찾았다.

이들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해남 송호마을어촌과 광주 대원여행사가 함께 개발한 관광상품 ‘슬로시티 청산도 바다여행’의 추진 실적, 여행 안정성, 상품 완성도, 시장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우수 또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한국어어촌어항협회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했다.

남중현 창신대 교수는 “전복양식장, 판매장 및 음식점, 송호해수욕장 등 기본적인 관광자원과 함께 캠핑장과 호텔,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해남 송호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관광프로그램을 통

해 마을에 활기가 돌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1차 관광객은 지난 11월 16일 32명 규모로 찾아왔다. 송호마을에 단체 외지 관광객이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모(65·서울)씨는 “해남 송호마을에서 전복이 나오는지는 몰랐다”며 “여기 와서 보니 너무 저렴하고 위생적이어서 전복을 좀 샀다”고 말했다. 이날 관광객들은 전복 판매장에서 25kg의 전복을 구매했다.

관광객들은 송호마을 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판매장에서 전복을 구매했다. 또 송호해수욕장의 해변을 걸은 뒤 전복양식장을 구경했다. 이들은 송호마을을 거쳐 땅끝마을, 완도 청산도, 광주 송정역 등을 둘러봤다.

용양배 해남 송호마을어촌계장은 “단체관

객의 방문으로 조용하던 어촌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며 “한 번 송호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전복도 재주문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과 질 높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 송호마을은 2015년 해양수산부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돼 전복 관련 식당, 판매장 등의 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2차 관광객은 지난 11월 23일 오전 32명 규모로 송호마을을 찾았다. 이들은 송호마을 내 식당에서 전복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전복판매장을 둘러 전복 22kg을 구매했다.

센터는 2018년에도 다양한 전남 어촌을 소재로 관광상품을 개발해 여행사들과 공동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어촌계장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 감사합니다”



김유근 계장 손흥주 계장 용양배 계장 정경태 계장 이희한 계장 김재광 이장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한 전남 대표 어촌계의 어촌계장들은 센터에 감사와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센터는 이들 어촌계가 특산물 생산·가공·판매, 관광객 방문 등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바지락과 자연산 굴을 생산하는 여수 소경도의 김유근 어촌계장은 “부족한 게 많은 마을을 도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모르는 부분들을 잘 지도해줘 고맙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정경태 무안 구로어촌계장은 “특화사업 하는데 있어 해양수산부 지원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며 “센터가 구로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줘 고맙고 마을 공동체 주민들 시야를 넓힐 수 있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무안 구로는 물김을 생산하고 있으며, 센터와 OEM(주문자 상표부착)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전복 양식을 하는 해남 송호마을의 용양배 어촌계장은 “전남센터 지금까지 해줬으면 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어촌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손흥주 함평 석두어촌계장은 “센터가 자기 역할을 잘 알고 어촌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주고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피조개를 양식하고 있는 여수 안포마을의 이희한 어촌계장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다른 여러 어촌에도 안포마을처럼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김재광 신안 환운마을 이장은 “먼 섬까지 찾아와 여러 가지 조언해 준 정성이 고마울 따름”이라며 “한운마을의 특산물 복원하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센터의 지원을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